새정부 2차 인선 임박, 내각·靑 비서진 거론되는 지역인사들

김광두·문성우·이정현·정승 물망

고용부 장관 김용달·검찰총장 소병철 주목

청와대 홍보수석 이상일·안형환씨 등 관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라 설연휴 이후 단행될 국무위원 및 청와대 비서진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호남 출신 인사가 얼마나 발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 내용에 따라 국민통합의 서막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인수위원회 안팎에서는 한번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계속 기용하는 '박근혜식 용인술'을 감안할 때 인수위 또는 대선캠프 출신이나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 등이 다수 하마평에 오른다.

우선 경제분야 전권을 맡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광주 출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특히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수장으로 대선과정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으로 경제공약을 입안, 가장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는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가장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다. 또 경제부총리에 거론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거명되고 있으나 새 정부에서 역할이 강화되는 중소기업청장 자리에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농림축산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호남인사들이 차지했던 자리. 여기에는 정승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정 전 차관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광주시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권영세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쇄신 공약을 성안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차동민 변호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호남 출신으로는 문성우 전 법무부차관이 거명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박 당선인 대변인인 조윤선 전 의원과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간사인 모철민 전 예술의전당 사장이 물망에 올라 있다. 호남 출신으로는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과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정무팀장은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또는 홍보수석으로도 거론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인 안종범 의원이 후보로 분류된다. 호남 출신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사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낸 함평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달 광주시 공동선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총장으로는 호남 출신인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기조실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 및 기획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지낸 바 있다.

전남 출신의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었던 안형환 전 의원도 청와대 입성이 확실시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11일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홍원 총리후보자에 대한 특위 구성 및 검증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우원식, 민병두, 최민희, 홍익표 의원. /연합뉴스

'공약재원 135조원' 고수…박 당선인 지역 공통공약 주목

섬진강 일대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방 거점도시 '중추도시권' 육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지역별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고 지역공통공약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통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별 공약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는 인수위가 박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재원 135조원'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지방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통 건의사항 외에 지역별로 공약사항과 건의사항을 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라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통공약이 우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배포한 공약집에는 '100%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란 제목의 지역공약편에서 8대 핵심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주민 주도의 지역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했다.

특히 ▲동서통합지대 조성 ▲스마트한 지방도시재생사업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평화지대 프로젝트 ▲신공항 건설 ▲사통팔달 전국교통망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지역발전 정책 추진체계 개편 추진 등 8대 정책이 공약의 핵심이었다.

이중 동서통합지대조성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당 대선공약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영·호남과 남해안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에 동서통합경제지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는 동서대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로는 영·호남의 접경지대인 섬진강 일대 등이 꼽혔으며 세부 사업으로 영·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호남까지 아우르는 '신공항 사업', 영·호남을 잇는 연륙교 건설 등이 검토됐다.

또 지방거점도시(10+α)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에 대해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 거점도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수정·보완해 거점도시를 결집한 좀 더 세분화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멤버들 청와대행 가능성 커졌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지명…유민봉·강석훈·민병주 등도 뒤따를듯

■ 박근혜 용인술 '쓴사람 또 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과 관련, 인수위나 대선 캠프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의 중용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명에 따라 인수위 멤버들의 '청와대행(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단 청와대 수석 비서관 9자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자리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이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아 깔끔한 일처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우선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책통인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도 발탁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구 의원인 점이 다소 걸림돌이다.

미래전략수석으로는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의원이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 등도 거론된다

정무 영역에 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 인선도 관심거리다. 대야 관계를 총괄하는 정무수석 자리에는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이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대선캠프 전략조정단장을 맡았던 권영진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민정수석으로는 인수위 법질서분과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조대환, 조응천 변호사,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홍보수석으로는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 조윤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전문가 카드로서 변추석 당선인 홍보팀장의 발탁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용·복지수석으로는 재정·복지 전문가인 안종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수석으로는 현직 고위관료가 중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문화수석에는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인수위 인재풀보다는 현직 관료를 기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외교부 장관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설 연휴 박 당선인 "낡은 것들과 작별…새 국정운영 펼치겠다"

'박근혜표 개혁' 시작되나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검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11일로 보름이 채 남지 않으면서 민심의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까지 사흘의 설연휴 기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조각(組閣) 인선의 검증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계사년 새해 인사를 통해 "설이라는 말의 어원은 '낯설다'라는 뜻이라는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간 낡은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던 그동안의 메시지와 달리 박 당선인은 '낡은 것들에게 작별', '잘못된 관행을 바꿔"새 시대를 시작하려 한다' 등 변화에 무게를 싣는 국정운영의 좌표를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성인 1218명을 상대로 한 지난 4~7일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득표율을 밑도는 수치다. 박 당선인 측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 하락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썩 좋지않은 대목이라고 우려한다. 때문에 이 같은 악재를 뒤엎기 위해 집권 초기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박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당선인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현재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公認 國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6기)	광주교육대학교(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3.9.(토)	2013.1.24.(목)~3.9.(토)
수업기간	2013.3.8.(금)~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KWANGJU WOMEN'S UNIVERSITY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